

말차 카페

말차 카페는 호코쿠지 절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. 주변은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모습으로 조성되었습니다. 굽은 모양의 목조 지붕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본떠 제작되었습니다. 문이나 창문이 없는 개방적인 구조의 말차 카페는 모든 좌석이 정원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 최고의 대나무 숲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, 대나무 숲과 마치 하나로 이어진 듯한 공간을 연출합니다. 말차를 드시면서 조용한 휴식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.

말차 카페에서는 전통 양식으로 말차를 제공하는데, 도기 찻사발에 거품을 낸 말차를 라쿠간이라고 불리는 화과자와 함께 먹습니다. 설탕 등을 섞은 재료를 나무 틀로 눌러서 모양을 만드는 라쿠간은 봄에는 벚꽃과 같은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됩니다. 먼저 화과자를 먹고 나서 말차를 마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. 따뜻한 말차는 상시 주문을 받은 후 준비를 시작합니다.

말차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나무 찻반은 저마다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, 이 무늬는 가마쿠라에서 발전한 옷기인 가마쿠라보리로, 지역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입니다. 대나무 숲 입장 시와 말차 주문 시에는 각각 별도의 요금이 필요합니다.